



6면

'중소기업 성장시대'로의 대전환

전주매일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음 10월 21일) 제290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도시재생뉴딜 전국 5위 규모

전주 한옥마을 포함
마을관리 협동조합
구성 등 모범 사례로

현 정부, 2017년부터
도시재생 본격 추진

도, 현재까지 41곳 선정
빈집 정비 등 사업 시행

일도심 활성화를 통해 전북민의 특성을 살려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북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전국 5위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이전부터 전주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재생사업 완료 후 관리와 거점시설 활용, 마을관리 협동조합 구성 사례 등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꼽힌다는 평가다.

전북도에 따르면,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직시절 시행한 전주 한옥마을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의 모델을 제시한 것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재생 사업을 도입한 이후,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전국 17개 지자체 중 5위 규모의 총 41개소, 총사업비 5,880억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도는 전주 한옥마을 정비사업과 관련 국토부가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개발 실증단지를 노송동, 중앙동, 진북동 일대에 구축하는 등 효과가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도시 재생사업에 도 차원의 본격적인 행정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에서는 10조원씩 5년간 50조 원 투입계획을 골자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지난 2017년 7월에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도는 지난 2017년부터 국토부 공모에 적극 대응한 결과 2017년 6개소, 2018년 7개소, 2019년 9개소, 2020년 13개소, 2021년 3개소 등 올해까지 모두 41개소가 선정돼 도로·주차장 등 생활 SOC 공급 빈집 정비, 주민 교육 등의 전반적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도내 대학 총장들과 지역혁신사업 논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지역혁신사업(RIS)과 관련해 도내 대학 총장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도, 도시재생 실효성 향상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전북도(전북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해 24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도시재생학회,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IH 주택연구원장을 역임한 충북대 황희연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에 대한 기초 발제로 시작했다.

1부에는 서울시립대 김향자 교수의 '구도심 지역에서 관광과 연계한 도시 재생 추진방향', 양평 어울림센터 이민화센터장의 '일본의 정책 동향과 시사점'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우수사례로 거론되고 있는 전주·군산·익산·남원 사업 센터장의 '도시재생사업 성과 및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와 시·군지원센터) 80여 명이 참여해 도시재생사업 발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북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형 재생 모델을 발굴해 구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가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하면서 전주 원도심사업의 성과, 군산시 완료사업 관리방안, 익산시 거점시설 활용 방안, 남원시 마을관리협동조합 구성 사례는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전파됐다.

이 같은 사례는 지역민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등과 연계하고, 재생 선진국의 사례 적용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공모사업 유치로 쇠퇴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은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며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반영해 전북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수칙 준수가 '지름길'

노후화된 축산환경을 '스마트' 하게

도, 재래식 시설 ICT 융합

'스마트 축사'로 전환키로

내달 모델 실증화 추진



전북도가 노후화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력 향상을 위해 기존 시설을 '스마트 축사'로 전환한다. 도는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에 379억원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에 105억원을 투입하는 스마트 축산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노후화된 축사 시설에 약 4,600억원을 투입해 905개소를 현대화 축사로 탈바꿈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최적의 사육관리를 위한 '지능형 축사 관리시스템' 구축에 585억 원을 투입, 314개소 축사의 스마트화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축종별 스마트 축사 모델 기준 마련 및 실증화 사업을 통해 스마트 축산 활성화에 한 발 더 다가간다.

도는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민간 IT업체, 농가 등으로 구성된 스마

트 축산 전문조직(TF)을 운영한다.

또한, 2021년까지 양돈 양계, 2022년까지 한우, 젓소, 오리 등의 스마트 축산 모델 기준을 마련한다.

오는 12월에는 2022년 양돈분야 스마트 축산 모델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스마트 축산 활성화 발판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기존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등 구리미 지원을 통해 스마트 축산 표준 모델을 실증화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스마트 축산으로의 전환은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축산환경 개선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다"며 "축산농가의 스마트화 자율적 참여를 당부하고, 도에서도 축산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만성질환 건강지표 크게 올랐다

고혈압·당뇨병 등
도, 건강서비스 제공

주기적 상담 관리로
환자 등 만족도 ↑

부담이 높은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 당뇨병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지난 2012년 15.2명에서 2020년 5.8명으로 8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전국 순위 15위로 도내 당뇨병 사망률이 낮게 나타났다. 혈당수치 인지를 또한, 조사 시점인 지난 2018년 20.2%에서 2020년 28.9%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 도민들의 건강 인지를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도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지난 2016년 6.3명에서 2020년 4.0명으로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대비 사망률이 4위로 높았으나, 2020년 현재 11위로 사망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암 사망자 현황도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지난 2018년 94.3명(전국 7위)으로 전국 평균(92.1명) 대비 사망률이 높은 편이었으나, 2020년 사망률은 85.9명(전국 13위)으로 전국 평균 87.9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같이 도내 만성질환과 관련한 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은 전북도가 민선 7기 들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도민들의 건강권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도내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현재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만성질환자들과 소통하면서 건강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사업에는 모두 17만 1,646명이 등록돼 만성질환 상담, 교육, 운동 등 체계적으로 관리받고 있다. /유호상 기자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후원금은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문화를 만듭니다

정성 치후원금이 만드는 숙한 정치문화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액 공제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까지)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